

물어봤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심각하게 중국어로 전화 받아요?” “간암 환자라서요”  
 “간암 ! 권 형이 그러면 의사야!” “………….” 잠시 식당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저를  
 쳐다보는 눈길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귀농교육을 받고, 닭 농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으니……보통 한국인 입장으로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저를 쳐다보는 동료들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술을 거하게 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저녁 8시에 이곳에  
 오시면 막걸리와 소주 한잔 하면서 회포나 풀어 봅시다” 그날 이후로 농장에서 신기한  
 사람으로 통하면서 1년간 평택농장에서 닭들과 놀면서 자연과 보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에서 생각들을 다듬어가던 시간들 이었습니다.

( 귀농교육을 하던 농장 전경과 닭 농장 )

식사 후 QQ(중국에 카톡 전 단계에 문자 채팅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를 열어서  
 개인 채팅을 시작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7세의 후주평 입니다. 직업은 아실  
 것이지요> <그 동안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드시고 있던 약이 있었나요?>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 부터 간 검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가 많아서…………..) <이해 됩니다……………..중국의 일이  
 책상보다 밥상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하하하하> “하하하하….한국 분인데  
 중국 전문가라고 화형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년간 간과 췌장에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연장을 쓰라고 하는데……정말 방법이  
 없나요 ? > <현재 결과에서는……………그렇다고 손을 놓고 하늘나라에 갈수는 없지요.  
 생명의 소중함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방법을 제안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 상태라면